Journal of Crime and Police Policy
Vol.1. No.1 2023. pp 47~68

범죄예방 안전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1인 가구 안전환경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황 동 진**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범죄예방 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대구지역의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1인가구 안전환경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인식과 범죄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형성과 영역성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환경조성 전후로 안전인식 등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환경조성 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높아졌으며, 범죄두려움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주민 유대감과 권한역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체감도와 범죄두려움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유대감 및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는 제한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셉테드, 범죄예방효과, 안전환경, 범죄두려움, 안전인식

* 이 연구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대구시의 수탁을 받아 수행한 「2022 대구시 여성1인가구 안전환경조성사업」 안전진단 결과를 요약·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E-mail: hwang1216@daegu.pass.or.kr)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제언

Ⅰ. 서 론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적 대응전략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전통적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성범죄 위험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2015년 5,203가구에서 2021년 7,166가구로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은 33.4%로 가장 많은 가구유형을 차지하였다(통계청, 2022).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범죄와 안전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통계청(2022)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띄고 있으며,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13.2%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33.5%였으며, 성별로 보면 여성이 49.8%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강력 범죄를 접하면서가 가장 많았으며, 가로등이나 CCTV 등 안전시설 부족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요컨대, 최근 성범죄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적이 드물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불안과 위험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대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했으며, 각 지자체별로 여성 1인 가구 안전사업들이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이나 여성 1인 운영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여성안전 주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여성 1인 가구 안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구에는 1인 가구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여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마을보안관이나 안심 택배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를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셉테드는 도시의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 기법을 의미한다.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을 심리적, 물리적으로 억제 및 저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조성사업',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셉테드를 적용한 대표적인 안전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제로 주민의 범죄불안감을 감소시켰으며, 범죄예방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셉테드의 논의가 확장되어 물리적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유대감 형성과 지속가능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의 논의로 볼 수 있다.

대구에서도 셉테드를 적용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이 추진하여 운영중이다. 2021년 대구여성가족재단과 대구시, 대구경찰청 등 함께 대구 북구 태전동 일대에 '샛별로'를 조성하여 범죄예방 및 여성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두운 거리에 조도를 높이고 CCTV, 비상벨 등 위험상황 발생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2022년에도 대구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여성안전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일대에 '초롱길'을 조성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각 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환경조성 사업들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이 일회성에 그쳐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따라서 여성을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는 한계점이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서 수행한 여성 1인 가구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예방차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셉테드의 확장과 지속가능한 범죄예방환경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으로 분석대상을 넓혀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사업이 안전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안전환경조성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셉테드 개념적 정의

셉테드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CPTED라는 용어는 Jeffery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ign(1971)」에서 최초 사용되었다. 셉테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설계 또는 기법을 의미한다(Jeffrey, 1971). 셉테드는 접근 통제, 자연감시를 통해 공공 안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기관, 지역 주민, 디자인 전문가 등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범죄 및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식별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공공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하는 기회를 사전에 줄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전함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범죄예방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세대 셉테드는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비롯되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주가 되어 범죄취약 지역에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초기의 셉테드 전략은 일정부분 범죄예방에 효과는 있었으나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체가 행정기관과 전문가 주도로 추진되었기에 해당 지역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1세대 셉테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셉테드 적용을 위해 지역주민과 경찰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이들 간의 네트워크 연계를 고안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 2세대 셉태드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2세대 셉테드는 지역의 경찰과 연계하고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1세대 셉테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세대 셉테드에서 보다 확장하여 3세대 셉테드는 공동체적 범죄예방 추진 절차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행정조직 또는 전문가가 범죄취약지역을 진단하고 필요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 주민동의 및 참여를 이끌어들였다면, 처음부터 지역의 구성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요구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이 직접 범죄예방 환경구축을 주도함으로써 환경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된다는 이점있다. 정책 수립 초기부터 시행 및 절차,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관주도가 아닌 주민이 함께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셉테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셉테드의 기본원리

1세대 셉테드의 기본 원리는 크게 3가지 기본 전략과 2가지 부가전략으로 총 5가지 작동원리를 따른다. 먼저, 기본전략으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가 있다.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가시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범행 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거주 지역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은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범행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영역성(Territoriality) 강화는 특정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가상의 영역을 확장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원리로 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당초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유지 및 관리를 의미한다. 각각의 원리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이상의 원리들이 작동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표 1> CPTED의 기본 원리

구분		내용
기본원리	자연적 감시	가시권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예방을 위해 피해 대상자, 가해자, 환경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함
	접근통제	해당 지역의 접근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행의 기회를 제거하고자 함. 예컨대, 허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출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대상자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함
	영역성 강화	영역성 또는 영토성으로 해당 지역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상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부가원리	활용성의 증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장소에 대한 이용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고 범죄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의미함
	유지관리	해당 공간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자료 출처: Cozens & Love, 2015, A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2세대 셉테드의 기본원리는 1세대 기본원리에 더해 사회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범죄예방

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2세대 셉테드는 사회적 응집력, 지역사회 연결성, 지역사회 문화, 한계역량을 포함한다. 사회적 응집력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과 집단 간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상호 존중과 감사가 존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연결성은 지역주민들의 다양성을 용인하고 공통의 비전과 소속감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연결성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범죄와 일탈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자기 단속을 장려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문화는 축제, 문화행사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영토성을 확장하게 한다. 한계역량은 지역공동체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한계역량을 인식하고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준과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Cozens & Lov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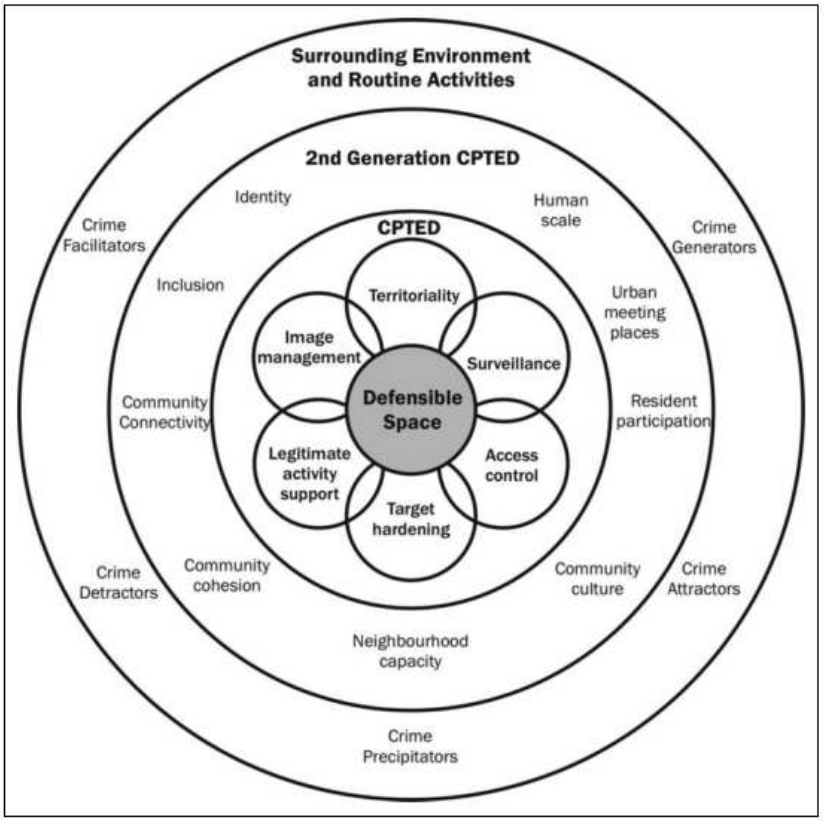
<그림 1> 셉테드 통합 모델

3세대 셉테드 지역주민으로부터 출발한다. 1세대 셉테드는 자연감시를 강화하고 보안등 및 CCTV를 설치하는 등 고위험지역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2세대 셉테드는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면 3세대 셉테드는 주민들 스스로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ihinjac and Saville, 2019).

3세대 셉테드의 기본원리는 Maslow 욕구이론(Maslow, 1971)에 기초한다. 1세대 셉테드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즉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면, 2세대 셉테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세대 셉테드는 하위욕구를 포함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자존감, 지역사회의 참여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통한 자아실현, 지속적으로 이웃과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자기초월과 같은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살기 좋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구한다. 이는 단순히 범죄예방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활동을 찾음으로써 그 행위 자체가 지역사회의 안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

3.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및 안전인식

범죄기회이론은 가해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기회적 요인에 주목한 이론이다. 예컨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통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가해자가 범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Cohen & Felson, 1979). 기회요인에 주목하여 일상행



※ 자료 출처: Cozens & Love, 2015, A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p.6

위이론, 생활양식이론 등 범죄기회와 관련된 이론들은 범죄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또는 무작위로 발생하기 보다는 특정 장소 및 시간(예컨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 늦은 저녁시간), 특정 연령대, 성별, 거주형태 등 범죄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큰 대상에게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Cohen, 1981; Hindelang, et al, 1978; Miethe et al., 1991). 이를 셉테드 관점에서 적용해본다면 범죄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예컨대 자연감시를 강화하고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법무부는 CPTED의 첫 실증 테스트를 수행했다. 코네티컷주 Hartford의 Asylum Hill 지역에서 도시 구조와 범죄 기회의 결과를 분석했다. 3년간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후, 범죄와 셉테드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적절하게 설계된 도시 형태가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Gardiner, 1978).

국내 연구에서도 셉테드를 적용한 지역의 주민들의 범죄두려움과 범죄피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제, 2007; 박영주, 2010). 그러나 효과가 제한적이며, 운영 및 관리 등의 지속가능성, 주민참여 및 관심 등의 부족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김순석, 2016; 윤우석, 2015). 셉테드를 통해 범죄기회를 줄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가에 따라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죄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지역에 셉테드를 적용한 1인 가구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인식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여성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대구시는 범죄를 예방하고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범죄 핫스팟 집중도와 범죄발생건수, 범죄발생추이 등 범죄위험성이 높으며, 보안등이나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하거나 범죄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선정하여 사업이 실시되었다. 선정된 대구의 A지역은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해있으며, 5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방범시설의 사각지대 및 낮은 조도 등으로 인해 범죄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선정된 대상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체감도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욕구에 기반하여 해당지역의 환경개선이 필요한(CCTV사각지대, 조도가 낮은 구역 등) 위치에 벽부등, 안심거울, 옐로카펫, 안전지도 등을 설치하였다.

안전환경 조성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대상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환경 조성 전과 후의 안전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4월 27일~5월 13일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 11월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대상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별 층화하여 비비례층화표집을 하였다. 지역의특성상 지역주민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 비례층화할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령대별로 비율을 맞추어 표집하였다. 이를 통해 200명을 최종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사전과 사후의 비교를 위해 패널을 유지하였으나 조사에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패널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코호트로 전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안전환경조성관련에 대한 수요, 거주지역 분야별 안전 정도, 환경평가와 범죄 두려움, 주민 간 유대관계, 상황 발생 시 대처, 지역 범죄예방활동 및 순찰활동, 우리지역 범죄예방활동 도움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2. 변수구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상태, 거주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셉테드 적용를 적용한 안전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안전

인식, 범죄피해두려움, 지역환경인식, 지역주민유대감, 주민권한(범죄 발생시 대처) 등의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변수 구성

구분	내용	응답 범주
안전인식	우리 지역은 전반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우리 지역은 혼자 밤에 걸어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지역사회 환경 인식	우리 지역의 길거리는 쓰레기나 오물, 낙서 등으로 인해 지저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우리 지역은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다	
	우리 지역은 밤이 되면 거리가 어두운 편이다	
	우리 지역은 후미진 곳이 많다	
	우리 지역에는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지역은 불량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	
	우리 지역에서는 시끄러운 고함소리나 싸우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	
범죄피해 두려움	우리 지역은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우리 지역에서 낮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주간)	
	우리 지역에서 밤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야간)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봐 두렵다	
	우리 지역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까봐 두렵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지역주민 유대감	우리 지역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이웃주민들과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지낸다	
	지역 사람들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우리 지역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는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영역성 강화	만약 동네에 불량스럽게 보이는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한다면, 나는 이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만약 집 앞(또는 아파트 동 앞)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돌아다닌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만약 집 앞(혹은 아파트 동 앞)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고 있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3. 분석방법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 안전인식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t-test를 활용하였다. 사전사후 비교에서는 패널과 코호트가 혼합되어 있어 대응표본분석을 하지 않고 독립표본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 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남성은 40.0%, 여성은 60.0%였으며, 연령대는 할당표집하여 각 연령대별로 25.0%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는 미혼 35.5%, 기혼 63.0%, 기타 1.5%였으며, 가구유형은 1인가구 15.5%, 가족을 포함한 2인 이상 77.0%, 친구 등 지인을 포함한 2인 이상 가구가 7.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6.5%, 고졸 42.5%, 전문대졸 18.0%, 대졸 31.5%, 대학원 이상 1.5%로 조사되었다.

거주형태는 아파트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24.5%, 원룸 등 다세대 주택 24.0%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5년 이상이 각 23.5%,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1.0% 순이었다.

<표 4>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응답 수	비율
전 체		200	100.0%
성별	남성	80	40.0%
	여성	120	60.0%
연령	20대	50	25.0%
	30대	50	25.0%
	40대	50	25.0%
	50대 이상	50	25.0%
혼인 상태	미혼	71	35.5%
	기혼	126	63.0%
	기타	3	1.5%
가구유형	1인 거주	31	15.5%
	2인 이상(부모 등 가족)	154	77.0%
	2인 이상(친구 등 지인)	15	7.5%
최종 학력	중졸	13	6.5%
	고졸(재학포함)	85	42.5%
	2년제 졸(재학포함)	36	18.0%
	대졸(재학포함)	63	31.5%
	대학원 이상(재학포함)	3	1.5%
거주 형태	단독주택	49	24.5%
	원룸 등 다세대 주택	48	24.0%
	아파트	92	46.0%
	상가	11	5.5%

구 분		응답 수	비율
거주지 거주기간	5년 미만	64	32.0%
	5-10년 미만	47	23.5%
	10-15년 미만	42	21.0%
	15년 이상	47	23.5%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요구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가로등과 같은 조명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CCTV 41.0%, 안심비상벨 17.5%, 안심거울 1.0%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은 앞서 언급한대로 조도가 낮아 어두운 거리가 많았으며, CCTV의 사각지대가 있어 범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안전 욕구 또한,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가로등 설치와 CCTV설치에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지역주민 범죄예방 필요 시설

구 분			지역에 필요한 범죄예방 시설물							
			CCTV		가로등과 같은 조명		안심거울		안심비상벨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00	82	41.0%	81	40.5%	2	1.0%	35	17.5%
성별	남성	80	37	46.3%	35	43.8%			8	10.0%
	여성	120	45	37.5%	46	38.3%	2	1.7%	27	22.5%
연령	20대	50	15	30.0%	22	44.0%	1	2.0%	12	24.0%
	30대	50	21	42.0%	22	44.0%			7	14.0%
	40대	50	24	48.0%	18	36.0%			8	16.0%
	50대 이상	50	22	44.0%	19	38.0%	1	2.0%	8	16.0%
혼인 상태	미혼	71	23	32.4%	35	49.3%	1	1.4%	12	16.9%
	기혼	126	57	45.2%	46	36.5%	1	0.8%	22	17.5%
	기타	3	2	66.7%					1	33.3%
거주 상태	1인 거주	31	12	38.7%	14	45.2%	1	3.2%	4	12.9%
	2인 이상(부모 등 가족)	154	63	40.9%	62	40.3%	1	.6%	28	18.2%
	2인 이상(친구 등 지인)	15	7	46.7%	5	33.3%			3	20.0%
거주지 거주기간	5년 미만	64	27	42.2%	21	32.8%	1	1.6%	15	23.4%
	5-10년 미만	47	21	44.7%	20	42.6%	1	2.1%	5	10.6%
	10-15년 미만	42	13	31.0%	20	47.6%			9	21.4%
	15년 이상	47	21	44.7%	20	42.6%			6	12.8%

지역에 안전한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한 곳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이동하는 골목길이 66.0%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가 19.0%, 공원주변 10.0%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및 조성 필

요 지역 등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골목길 중심으로 조도를 높이기 위해 조명을 설치하고 공원 주변과 주택 주변으로 안전 시설물 등을 해당지역에 설치하였다.

<표 6> 안전환경 조성 필요 지역

구 분			안전한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한 곳									
			상점이 많은 큰길		주택가의 차량이동이 다소 있는 도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골목길		공원주변의 차량이동이 다소 있는 도로		기타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00	9	4.5%	38	19.0%	132	66.0%	20	10.0%	1	0.5%
성별	남성	80	3	3.8%	16	20.0%	51	63.8%	9	11.3%	1	1.3%
	여성	120	6	5.0%	22	18.3%	81	67.5%	11	9.2%		
연령	20대	50	2	4.0%	14	28.0%	30	60.0%	4	8.0%		
	30대	50	1	2.0%	6	12.0%	39	78.0%	4	8.0%		
	40대	50	3	6.0%	11	22.0%	33	66.0%	3	6.0%		
	50대 이상	50	3	6.0%	7	14.0%	30	60.0%	9	18.0%	1	2.0%
혼인 상태	미혼	71	2	2.8%	15	21.1%	48	67.6%	6	8.5%		
	기혼	126	7	5.6%	23	18.3%	81	64.3%	14	11.1%	1	0.8%
	기타	3					3	100.0%				
거주 상태	1인 거주	31	1	3.2%	6	19.4%	16	51.6%	8	25.8%		
	2인 이상 (부모 등 가족)	154	8	5.2%	28	18.2%	106	68.8%	11	7.1%	1	0.6%
	2인 이상 (친구 등 지인)	15			4	26.7%	10	66.7%	1	6.7%		
거주지 거주기간	5년 미만	64	2	3.1%	10	15.6%	45	70.3%	7	10.9%		
	5-10년 미만	47	2	4.3%	11	23.4%	30	63.8%	4	8.5%		
	10-15년 미만	42	3	7.1%	9	21.4%	26	61.9%	4	9.5%		
	15년 이상	47	2	4.3%	8	17.0%	31	66.0%	5	10.6%	1	2.1%

3. 안전인식

안전에 대한 인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은 사전조사 결과 전체 평균 3.03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 3.25점, 여성 2.88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2.78점으로 안전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40대 2.86점, 30대 3.22점, 20대 3.26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업 조성 후에는 전체 평균 3.56점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 3.63점, 여성 3.52점으로 남성, 여성 모두 안전체감도가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전 연령층에서 안전체감도가 증가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 증가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안전인식 사전사후 비교

구 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전 체		200	3.03	200	3.56
성별	남성	80	3.25	80	3.63
	여성	120	2.88	120	3.52
연령	20대	50	3.26	50	3.74
	30대	50	3.22	50	3.60
	40대	50	2.86	50	3.44
	50대 이상	50	2.78	50	3.46
혼인 상태	미혼	71	3.28	66	3.68
	기혼	124	2.91	130	3.50
	기타	3	2.67	4	3.50
거주 상태	1인 거주	30	3.07	32	3.31
	2인 이상(부모 등 가족)	140	3.01	146	3.62
	2인 이상(친구 등 지인)	25	3.04	21	3.52
	기타	3	3.33	1	3.00
거주 형태	단독주택	49	2.69	47	3.43
	원룸, 빌라 등 다세대 주택	48	3.17	43	3.60
	아파트	92	3.17	97	3.67
	상가	11	2.73	13	3.08
거주지 거주기간	5년 미만	64	3.05	72	3.46
	5-10년 미만	47	3.02	44	3.48
	10-15년 미만	42	2.88	38	3.74
	15년 이상	47	3.15	46	3.65

밤에 혼자 걸어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결과 전체 평균 2.88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 2.70점으로 남성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보다는 기혼이 안전

하지 못하다고 인식했으며, 1인가구인 경우 그 외 가구유형의 주민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업 조성 후에는 전체 평균 3.43점으로 사전과 비교하여 0.55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6.385, p=0.000).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 3.51점, 여성 3.37점으로 남성, 여성 모두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이 상승하였으며, 20대, 50대 이상에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밤길 안전 체감도 사전사후 비교

구 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전 체		200	2.88	200	3.43
성별	남성	80	3.15	80	3.51
	여성	120	2.70	120	3.37
연령	20대	50	3.02	50	3.62
	30대	50	3.06	50	3.42
	40대	50	2.80	50	3.34
	50대 이상	50	2.64	50	3.32
혼인 상태	미혼	71	3.04	66	3.58
	기혼	124	2.81	130	3.35
	기타	3	2.33	4	3.25
거주 상태	1인 거주	30	2.80	32	3.13
	2인 이상(부모 등 가족)	140	2.90	146	3.51
	2인 이상(친구 등 지인)	25	2.80	21	3.33
	기타	3	3.33	1	3.00
거주 형태	단독주택	49	2.57	47	3.28
	원룸, 빌라 등 다세대 주택	48	2.90	43	3.35
	아파트	92	3.05	97	3.59
	상가	11	2.73	13	3.00
거주지 거주기간	5년 미만	64	2.77	72	3.17
	5-10년 미만	47	2.87	44	3.43
	10-15년 미만	42	2.93	38	3.66
	15년 이상	47	3.00	46	3.63

범죄에 대한 피해 인식으로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밤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는 질문에는 3.21점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범죄 피해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사업 조성 후에는 범죄 두려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은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에 대해서는 사전 2.63점 사후 2.28점으로 감소하였으며, '나는 우리 지역에서 낮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주간 야간 모두 각각 사후 2.25점, 2.57점으로 사전에 비해 두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사전 2.82점 사후 2.40점으로 감소하였으며, '나는 우리 지역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까봐 두렵다'는 사전 2.83점, 사후 2.37점으로 두려움 감소하였다. '나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사전 2.83점, 사후 2.44점으로 감소하였으며, '나는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사전 2.78점, 사후 2.37점으로 전반적으로 두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범죄 두려움 사전 사후 비교

구 분		범죄 두려움 평가							
		명	범위 (응답 수, %)					평균 (점)	t(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역은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1차조사	200	5 2.5%	85 42.5%	89 44.5%	21 10.5%	-	2.63	4.904***
	2차조사	200	21 10.5%	113 56.5%	55 27.5%	11 5.5%	-	2.28	
2) 나는 우리 지역에서 낮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주간)	1차조사	200	16 8.0%	68 34.0%	90 45.0%	23 11.5%	3 1.5%	2.65	4.715***
	2차조사	200	26 13.0%	119 59.5%	37 18.5%	15 7.5%	3 1.5%	2.25	
3) 나는 우리 지역에서 밤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야간)	1차조사	200	7 3.5%	40 20.0%	63 31.5%	84 42.0%	6 3.0%	3.21	6.996***
	2차조사	200	19 9.5%	86 43.0%	63 31.5%	27 13.5%	5 2.5%	2.57	
4) 나는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봐 두렵다	1차조사	200	17 8.5%	45 22.5%	97 48.5%	40 20.0%	1 .5%	2.82	4.955***
	2차조사	200	21 10.5%	101 50.5%	57 28.5%	20 10.0%	1 .5%	2.40	
5) 나는 우리 지역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1차조사	200	17 8.5%	52 26.0%	80 40.0%	50 25.0%	1 .5%	2.83	5.351***

구 분		범죄 두려움 평가							
		명	범위 (응답 수, %)					평균 (점)	t(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당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길까봐 두렵다	2차조사	200	23 11.5%	99 49.5%	62 31.0%	14 7.0%	2 1.0%	2.37	
6) 나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1차조사	200	16 8.0%	58 29.0%	71 35.5%	54 27.0%	1 .5%	2.83	4.480***
	2차조사	200	20 10.0%	94 47.0%	67 33.5%	17 8.5%	2 1.0%	2.44	
7) 나는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1차조사	200	17 8.5%	61 30.5%	74 37.0%	46 23.0%	2 1.0%	2.78	4.549***
	2차조사	200	25 12.5%	97 48.5%	59 29.5%	17 8.5%	2 1.0%	2.37	

$p < .05$ *, $p < .01$ **, $p < .001$ ***

4. 지역에 대한 인식

거주 지역 주민간 유대를 조사한 결과 주민 간의 유대는 상대적으로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간의 왕래, 소통, 인지 등은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수준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 줄 것이라는 믿음은 보통수준이었으나 교류 및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안전사업 조성후에도 지역 주민 간의 유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조성 전과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0> 지역주민 유대감 사전 사후 비교

구 분		주민 간 유대 평가							
		명	범위 (응답 수, %)					평균 (점)	t(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1차조사	200	16 8.0%	52 26.0%	75 37.5%	55 27.5%	2 1.0%	2.88	-1.476
	2차조사	200	9 4.5%	35 17.5%	106 53.0%	46 23.0%	4 2.0%	3.01	

구 분		주민 간 유대 평가							
		명	범위 (응답 수, %)					평균 (점)	t(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이웃주민들과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지낸다	1차조사	200	29 14.5%	68 34.0%	61 30.5%	41 20.5%	1 .5%	2.59	-1.326
	2차조사	200	17 8.5%	64 32.0%	81 40.5%	36 18.0%	2 1.0%	2.71	
3) 나는 지역 사람들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1차조사	200	24 12.0%	78 39.0%	65 32.5%	32 16.0%	1 .5%	2.54	-2.767**
	2차조사	200	16 8.0%	52 26.0%	94 47.0%	34 17.0%	4 2.0%	2.79	
4)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는다	1차조사	200	10 5.0%	42 21.0%	97 48.5%	49 24.5%	2 1.0%	2.96	-1.646
	2차조사	200	4 2.0%	31 15.5%	113 56.5%	48 24.0%	4 2.0%	3.09	
5) 우리 동네 주민들은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1차조사	200	8 4.0%	40 20.0%	90 45.0%	59 29.5%	3 1.5%	3.05	-0.629
	2차조사	200	6 3.0%	25 12.5%	116 58.0%	50 25.0%	3 1.5%	3.10	

$p < .05$ *, $p < .01$ **, $p < .001$ ***

5. 지역에서 상황 발생 시 태도

지역에서 상황 발생 시 태도를 분석한 결과, 환경조성 전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시 신고나 대응 등에 대해 보통수준을 보였으며, 셉테드를 적용한 환경 조성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셉테드의 영역성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권한을 확장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영역성 강화 사전 사후 비교

구 분		지역에서 상황 발생 시 태도							
		명	범위 (응답 수, %)					평균 (점)	t(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동네에 불량스럽게 보이는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한다면, 나는 이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다	1차조사	200	29 14.5%	100 50.0%	39 19.5%	30 15.0%	2 1.0%	2.38	-0.496
	2차조사	200	25 12.5%	89 44.5%	64 32.0%	20 10.0%	2 1.0%	2.43	
2) 만약 집 앞(또는 아파트 동 앞)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돌아다닌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1차조사	200	6 3.0%	26 13.0%	67 33.5%	94 47.0%	7 3.5%	3.35	-0.165
	2차조사	200	10 5.0%	21 10.5%	71 35.5%	82 41.0%	16 8.0%	3.37	
3) 만약 집 앞(혹은 아파트 동 앞)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고 있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1차조사	200	4 2.0%	14 7.0%	31 15.5%	119 59.5%	32 16.0%	3.81	0.670
	2차조사	200	4 2.0%	14 7.0%	52 26.0%	89 44.5%	41 20.5%	3.75	

$p < .05$ *, $p < .01$ **, $p < .001$ ***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셉테드를 적용하여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안전환경을 조성한 후 안전과 범죄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안전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탐색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밤에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셉테드를 적용한 환경조성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부분 유대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또한, 영역

성 강화 대한 측면에서도 환경조성사업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측면이었으며,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셉테드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어왔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적용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범죄 분석 및 안전진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사업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인식이 사업 전과 비교하여 변화하였으며, 특히 늦은 밤 보행의 불안감을 느꼈던 여성들이 사업 이후 불안감이 낮아진 것은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아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해당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와 안전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영역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일각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관계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안전사업이 일차적인 범죄두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셉테드 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해당 사업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과 주민들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셉테드의 적용이 1세대를 거쳐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를 실제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기존 1세대 셉테드 개념의 범죄예방 효과로는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세대 셉테드에서 강조되었던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부터 어려운 실정이라 3세대로 확장까지는 아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범죄로부터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까지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확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의 범죄예방환경 조성 사업은 위에서 아래로 top-bottom 형식이 아닌 bottom-top 형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에서 나아가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요구하는 민간주도의 형태로 셉테드 정책이 확장된다면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지속적이 모니터링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으로 사전사후의 통계적 검증과 관련하여 패널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해 엄격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김순석, 2016, “한국에서의 셉테드 적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12(4): 47-70.

김영제, 200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33-61.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

박영주, 20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구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9(1): 55-82.

2. 국외 문헌

Cohen, L. E., 1981. “Modeling crime trends: A criminal opportunit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8(1): 138-164.

Cohen, L. 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Cozens, P., and Love, T., 2015, “A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30(4): 393-412.

Gardiner, R., 1978, “California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Crime Prevention Unit, & United States of America”, Crime Prevention Review, 5(2): 34-39.

Hindelang, M. J., Gottfredson, M. R., and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MA: Ballinger.

Mihinjac, M., and Saville, G., 2019, “Third-genera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Social Sciences, 8(6): 182.

Miethe, T. D., Hughes, M., and McDowall, D., 1991, “Social change and crime rates: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es”, Social forces, 70(1): 165-185.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and safety projects

-Focusing on the "Single Household Safety Environment Creation Project" in Daegu-

Hwang, Dong-Jin

[Abstract]

The study is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and safety project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Daegu City's 'Single Household Safety Environment Creation Project' on the safety awareness and fear of crime among local residents, as well as its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ommunity cohesion and expansion of territoriality among local residen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00 local residents residing in the project's target area.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finding indicates tha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environment creation project, local residents' safety awareness increased, and their fear of crime decreased. However, the second finding suggests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observed in community cohesion and empowerment among local residents. While the applied safety environment creation project showed positive effects on residents' sense of safety and reduction of crime fear, it had limited impact on fostering community cohesion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future direction of safety projects.

Key-Words: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safe environment, fear of crime, safety awareness